

“순번제 대표이사 복귀 시도 즉각 중단”

GCT지부노동조합,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행 대표이사 공모제 유지 촉구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사인 GCT(주)(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상기류가 흘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포함 민간역사인 C대한통운, 세방, 선광 등의 출자로 지난 2004년 설립된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은 설립 당시 민간 주주사의 순번제 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해오다 2016년부터 공모제로 전환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과거 민간역사의 순번제 낙하산 인사로 인해 GCT는 독립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이는 적자로 직결돼 회사가 고사 직전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공모제 대표이사 선임 후 책임 있는 경영으로 꾸준한 물동량 증가의 실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3명의 조합원들은 “잘못된 과거로의 복귀는 회사를 다시 적자와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군산시민들과 더 나아가 전북도민들의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경.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영을 책임지는 공모제 대표이사를 선임하라”고 입을 모았다. 전성진 지부장은 “주주사 순번 추천제 인사는 그동안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회사 경

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뿐 아니라 소속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사의 영업에 이용하는 폐단을 낳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 지부장은 “2016년 공모제로 전환 후 경영정상화를 마련해 신규항

로개설과 영업의 다변화를 꾀해 물동량 증가에 따라 13년의 적자 경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경영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GCT는 민간주주사의 것이 아닌 군산항과 지역사회의 중요한 물류 인프라이며 막대한 세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군산시의 전북도의 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행 대표이사 공모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군산컨테이너터미널지부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표이사 선임 공모제 이후 매년 약 9억 원의 적자에서 2017년 8천3백만원, 2018년 약 2억5천만원의 흑자로 전환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GCT 전체화물의 1/3을 차지했던 한국지역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으로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2017년 대비 17% 가량 증가했다.

한편, 오는 30일 C대한통운, 세방, 선광 등 민간주주 회사 3사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이사 선임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 군산교육지원청이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추진 업무협약

군산시-군산교육지원청,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의 내실화

군산시의 군산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혁신교육특구’는 군산시 및 군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올해에만도 교육청 지원 예산과 시비 등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향후 4년 동안 두 기관이 상호 협의의 아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또한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역연계 청소년 진로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근대역사교육활동지원, 청소년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교육특구 업무 협약으로 교육 분야에 재정적인 투자와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는 토대를 마련하고,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 및 혁신교육 모델을 통해 행복교육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익산, 미세먼지 대책 계획에만 그쳐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익산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서별 세부계획을 취합하고 있으나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말까지 각 부서의 추진세부계획을 마련, 2월 초 총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또 현재 팔봉동과 남중동 등 2개 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이

외에 옹포·성당·용동·여산·함열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망 2개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익산지역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해 해법마련을 위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 미세먼지를 차단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주민 불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는 당장 올해부터 도시 숲과 가로수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당면과제임에도 정부의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에 의존하려는 형국에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나마 지난해 제3일반산업단지과 목천공원, 황등보살말공원, 곰돌이유아숲 등에 소나무 등 1134그루를 식재해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등에 나서고 있으나 미세먼지 억제·차단에는 실패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해 확보한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익산국가산단 인근에 수목을 식재하고 컴퓨터

조성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 하나로 도시바람길 숲과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계획단계여서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마동 등 생활권 주변과 제3산단 공원 등에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비 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역시 계획 단계인 상태에서 시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전반적인 오염도 추경을 위해 올해 미세먼지 측정장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각 부서의 대책을 취합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

군산시의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24일 제215회 임시회 폐회 후 김경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전체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경기철채와 대형마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역전종합시장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및 군산시장 상품권을 이용해 장보기를 했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들을 격려하면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김경구 의장은 “전통시장 장보기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넉넉한 인심을 덂으로 느끼고 동시에 작은 소비실천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좋은 방안”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의회가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나섰다.

익산시, 소형 농기계면허 교육지원 ‘인색’

익산시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농업인 편익증진을 공언하면서도 정작 지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4일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300cc 미만 지게차와 굴삭기 등 소형농기계 조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형 농기계들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교육생을 모집, 위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교육생 100명

을 모집해 운영에 들어간다. 시의 교육비 지원은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지원은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정읍시와 비교가 되고 있어 지원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교육비를 100% 지원하면 전체는 아니지만 교육을 신청하고 참석하지 않는 농민도 있다”면서 “교육비 확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시, 명절연휴 상수도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

군산시가 명절연휴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수도 생활민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귀성객의 방문으로 수도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날 때까지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을 사전

에 점검하고 수도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계량기 통과, 상수도 누수와 단수, 수도관 파손 등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상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해 시민불편 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